



봉우 컬럼

마음을 바꿔야지!

간판을 바꾼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책상을 바꾼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며,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음식점 이름을 바꾼다고 음식 맛이 좋아질까? 일 못하는 놈에게 연장 바꿔준다고 일 잘할까? No! 성령을 했다고 마음씨가 고와지는 것도 아니고, 웃을 잘 입었다고 인격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교회에 온다고 다 복 받는 것도 아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예전과 같아도 내 마음만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바뀌어 손님에게 극진해지면 그 장소에서도 장사는 잘 되고, 내 마음이 바뀌면 책상 대신 밥상을 놓고 공부해도 성적은 오른다. 화초장을 놓고 사는 놀부네보다 초가삼간에 살지만 마음이 풍요로웠던 흥부네가 행복했고, 좋은 재료와 최고의 주방장을 두겠다는 마음이 음식을 맛깔나게 만든다. 열심과 성실한 마음으로 바뀌면 깨진 바가지로도 향아리를 채울 수 있고, 마음이 올바르고 착하면 내면의 거울인 얼굴에서 피부수술 안 받아도 절로 빛이 난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늘과 땅의 복이 찾아온다.

고로 바꿔야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더불어 내 인생도 변한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8:5-6).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육신의 것을 좇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의 학문이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생사화복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다(신30:14). 그러므로 멋진 인생, 맛난 인생을 살고 싶으면 마음을 잘 먹고, 영생의 복까지 누리고 싶으면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라.

진정한 승리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잘한다. 그러나 성공한 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에는 참으로 인색하다.”

목사님께서 크리스천들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누구나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남을 칭송하며 박수를 보내는 일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설이 작용하는 것 같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좀 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서로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일은 공동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을 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연방법원의 판단까지 가야할 상황이었지만, 그는 속히 패배를 받아들이고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해주었다. 만약 우리나라 같았으면 부정선거 시비에 정국은 한동안 겹잡을 수 없이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먼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위기에 몰렸을 때, 법정싸움을 포기하고 사임을 발표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자리는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다. 결과에 승

계 극복하고 우리 모두 미래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임기 내내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구시대적 작태는 정말 속히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다지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해왔다.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겠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자세는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가를 생각하는 더 차원 높은 의식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라고 믿는다. 내 생각에 원치 않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자세 역시 믿음의 용기가 없



경기는 끝났다. 결과에 승복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얼마 전 막을 내린 프랑스 대선에서 39세의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마지막까지 경쟁하던 상대 후보 르펜은 즉시 전화로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주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서로 다투던 트럼프와 클린턴 후보는 거의 이전투구를 방불할 만큼 서로를 비난하며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다. 그러나 선거결과가 나오자 클린턴 후보는 즉시 결과에 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성공을 기원했다. 클린턴은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되는 미국 대선제도에 따라 전체 득표는 더 많이 하고도 선거에 패배하는 결과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깨끗이 승복했다. 엘 고어 후보의 사건은 이보다 더하다. 부시 후보와의 격전에서 일부 주에 개

복하는 것은 모든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투표는 당선될 후보를 찾아내는 뽑기가 아니다. 내가 특정후보의 생각이나 정책에 동의하여 지지하게 되었다면 객관적 지지율에 상관없이 투표를 통해 민주적 의사를 표하는 것이 민주주의 꽃이라는 투표제도이다.

이제 경기는 끝났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당선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그가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는 것이 마땅한 민주시민의 도리다. 내가 원치 않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탄죽을 걸고 발목을 잡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해서는 정말 국가의 미래가 없다. 중대한 시기 아닌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새 정부를 도와 이 위기를 슬기롭

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규칙에 따른 경기 결과에 승복하는 것 역시 민주시민의 용기라 믿는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1-2)는 말씀에 따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기도한대로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벅찬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6:1~17)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리요, 부동(不動)의 법칙(法則)입니다. 행복의 기준과 척도는 가정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느냐,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위한 최초의 단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지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탐하고 추구하게 하여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 가족을 흠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행복한 가정의 필요조건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1~3).

돈으로 집은 짓지만 가정은 세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은 충분히 도망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사 이삭을 건져줬을 뿐 아니라 어디를 가나 백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의 생애를 순탄케 하였고, 리브가 같은 좋은 아내도 주셨습니다. 요셉도 효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까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힘에 겨운 나이였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 팔려 어려운 세월을 살았지만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한 것뿐 아니라 잘 공제하고 조카들까지 챙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받은 복은 헤아릴 수 없지요. 롯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여인으로 유다지파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자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었고, 다윗의 선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접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리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평생 동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아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중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먼저 된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를 집이나 지키는 개처럼 대접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지네들은 휴가라고 떠나면 서 부모는 집이나 지키라고 합니다. 개는 안 입어도 되는 옷을 이



것저것 사서 입히면서 부모에게는 알뜰 없습시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현대판 고려장까지 치르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형편이 안 돼서 효도를 못한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조금 있다 잘 하겠다고요? 여러분, 나무가 가만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세월이 부모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부모 계시 때 효도하세요. 저는 효자동의 유래에 대해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어느 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린 손자를 베고 자다가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손자를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자책하며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하여 몰래 죽은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영당을 호되게 때리

며 “이 자식아, 너는 왜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너 때문에 이 아비가 네 할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으니 어떡하면 좋으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났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고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孝子洞)’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효도까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주 전화라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하세요. 가르치려 들지 말고, 집 보는 개 취급하지 말고 잘 살피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귀와 장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사육하지 말고 양육

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6:4).

자식은 기업입니다(시127:3). 기업의 성패가 기업경영에 있듯 자식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곧은 거목이나, 잡목이나, 아니면 썩거나 결장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참되고, 머리가 된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게 하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7).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하며, 학식을 더하게 하며, 모략을 얻게 하므로 이보다 더 좋은 교육지침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인이 역사 이래로 가장 존경한다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 “오늘의 나는 내 손에 성경을 쥐어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나이 9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며 ‘이 한 권의 책이 너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씀을 늘 읽었던 링컨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리고 초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어느 목사님이 심방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는데 그 집 어린 아들이 불쑥 나오더니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엄마가 지금은 예배 중이니 이따 주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엄마의 뺨을 때리고 나가버립니다. 너무 놀라 어리둥절해있는 목사님에게 그 어미가 민망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애가 학교에서 1등하는 우등생이랍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기가 막혀서 “아니, 집사님. 1등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그런 자식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녀 교육 단단히 시키세요.” 라고 말씀하고는 돌아서 나왔답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29:15).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체벌을 해야 합니다. 채찍이 천대(千代)를 기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무조건 억압하거나 부모 감정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가 화가 난 상태로 아이를 때렸다가 다리를 못 쓰게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 집사에게 회개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았더니 아이가 그 자리에 게 다리에 힘이 돌아와 걷고 뛰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것도 담기지 않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들이 귀히 여겨질 것인가, 천해될 것인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십시오. 신명기 6장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가족은 가정 중심으로 살고, 가정은 예수 중심으로 살 때 행복이 넘치고, 그 가정들이 모여 아름다운 사회,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주식투자

존 템플턴은 글로벌투자의 선구자로, 아시아 경제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97~98년에 한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템플턴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어느 펀드매니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펀드 운용을 ‘신성한 신탁(a sacred trust)’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기적인 투자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정신적인 진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재산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이 재능과 재산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좋은 뜻의 행동, 친절하고 관대한 행동 하나 하나에는 반드시 성공이 뒤따른다. 당신이 받은 것은 축복이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축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템플턴은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시장을 이겨내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며,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식을 사야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이며,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은 치유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신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행동을 달리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템플턴의 이러한 역투자방식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행복한 기분에 빠져서, 또 하락장에서는 손실의 공포에 휩싸여 유용한 지표들을 무시한 채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결국 투자에서나 인생에서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따라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템플턴은 윤리의식을 강조하며 통상 ‘원죄를 가진 주식’이라고 부르는 주류, 담배, 도박회사 등에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또한 지켜 왔습니다.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후6:9)고 했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 템플턴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6:17~18)는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던 바울의 교훈에 귀 기울이면 합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To Be Succeeded ::

한 알의 밀이 되어 누리는 기쁨

할아버지 때부터 온 가족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아원을 전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목사인 아버지와 두 오빠를 연이어 총탄에 잃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그는 하늘을 향해 샅대질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분노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파리해져갔다. 어느 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비로소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눈으로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아들 또한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권사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과 두 오빠의 순교의 피를 밟아 삼으시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으니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24)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희생이며 사랑이다.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비참할지 모르나 후에는 빛나는 영광이며, 또한 무수

히 남겨진 이 땅의 열매들은 그를 대변한다. 이는 해산을 앞둔 여인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에 해산 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진리를 알기에 언더우드 가문은 조선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4대째 대대로 한국을 위해 헌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도 신사 참배 반대로 인해 옥에 갇힌 남편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 당신이 순교해야 한다.”고 힘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꿈을 가진 자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생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하고, 스승이 제자를 일깨우기 위해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다. 내 가정의 복음화,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는 뜨거운 꿈을 가슴에 품고 ‘나를 쓰소서’라는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한 모든 단체와 나라가 회복되고 굳건히 서는 기쁨을 속히, 그리고 반드시 누릴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증삼살인(曾參殺人)’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삼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언행이 신중한 효자였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베를 짜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증삼이가 살인을 했대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조금 후에 친척이 와서 똑같은 말을 했으나 증삼이가 그럴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사람이 달려와 “당신 아들이 살인죄로 체포되었다.”고 했다. 세 번째 말을 듣고는 베틀에서 내려와 진위여부를 알아보려 나가려 하는데 증삼이가 돌아와서 말한다. “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살인한 줄로 알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너를 믿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도 흔들리더라.”고 했다.

말이란 이렇듯 무서운 파급력이 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허의 권세에 있고, 허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다(잠 18:2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거짓을 금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시34:12~13).

근래 유방암 말기로 고통 받는 성도를 심방했다. 투병이 너무나 힘들었던지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며 죽고 싶음을 말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의 뒷말이었다. “그러나 이초석 목사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죽고 싶은 고통 중에도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산 소망을 갖게 했던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들으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요, 그 들음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롬10:17). 말에는 성취력이 있음을 잊지 말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귀를 기울이세요 ::

스승의 은혜

보스턴 근처의 한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한 소녀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애니(Annie).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결핵으로 잃은 어머니와 동생, 결막 질환으로 인한 시력 상실, 사람을 보면 공격하고 자신을 자해하는 소녀. ‘이 아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애니에게 나이 많은 어느 간호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183일간 속삭여준 말 “애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변화됐고, 훗날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Anne M. Sullivan)이 된다.

“저도 저를 찾아주셨던 간호사 선생님처럼 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제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퍼킨스 맹아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21살 설리번이 만난 맹인, 귀머거리, 병어리의 일곱 살 소녀 헬렌 켈러. 자신과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을 위해 설리번은 ‘물’의 의미를 가르치고, 손바닥 위에 알파벳으로 ‘물(Water)’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데 7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나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아이들과 똑같이 헬렌을 대하고, 가르쳤고, 훈육했다.” 1888년, 앤 설리번과 헬렌 켈러는 함께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등교하였으며, 함께 래드클리프 대학에 진학하였다. 1904년 헬렌 켈러는 복합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대학 학위를 받는 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 설리번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첫 날엔 나의 사랑하는 스승 앤 설리번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의 삼중고의 소녀’를 48년간의 헌신과 사랑으로 문필가이자 인권운동 사회복지가로 만든 앤 설리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참 스승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참 스승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참 스승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참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 스승이 있었습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날, 은사님에게 ‘선생님의 은혜, 고맙습니다!’라고 연락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미워도 다시 한 번

하나님을 향한 천성 길을 바라보며 살지만,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가끔씩 시험에 들 때가 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매주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대나무 마디가 하나씩 커 올라가는 것처럼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인 것 같다.

나 역시 최근에 시험에 빠져 냉담의 시간을 보냈었다. 겨우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뱉어낸 나의 말들이 선의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혼자서 끙해 있던 지난 시간동안 나는 참 많은 생각과 서운함에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잠을 못자기도 했었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별 것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동안에는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나는 제풀에 화가 나서 뻘뻘해지는 아이처럼 심통을 부리며 다녔다. 주일에배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가지 않을 거라며 말도 되지 않는 고집을 부리기도 했었다. (그래봐야 더 서럽고 속상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하고 회개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고집불통에 못난 아이처럼 심술만 부리고 있는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찾아왔다. “엄마와 아빠가 밋다고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느냐? 네가 속이 상해도 있어야 할 곳은 여기고, 네가 서럽다고 떼를 써도 위로받을 곳은 여기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겨울 내내 끙끙 얼어있던 내 마음이 봄벌레 눈이 녹아내리듯이 사르르 풀렸다. ‘그래, 엄마 아빠가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예수중심인데... 내가 미쳤지. 가기는 어디를 가겠는가?’ 오랜 시간 시험에 들어 허덕거리던 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날을 살고 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이 있다. 살다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밋고 싫은 순간이 시시각각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약한 인간인지라 주님의 품 안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시험에 들고는 한다. 그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뛰쳐나가 봐야 더 서럽고 불쌍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 상황이 싫고 그 사람이 미워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도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예수중심이다. 가끔씩 찾아오는 시험의 순간, 그 서러움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덮어주실 주님의 손길을 예비하는 징조일지도 모른다. 서러움의 시간이 지나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위로의 시간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 성도간증 ::

복 받을 짓을 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유증으로 이명과 환청이 심해 사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면 귀에서 새소리가 나서 잠을 못 들고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양교구 성전이 오피스텔 3층인데 4층에 사는 세입자가 새로 이사 와서는 예배 때마다 시끄럽다고 내려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음공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방음이 되도록 겹으로 방음공사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마치고 금요일예배 때 제가 찬양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귓밥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터라 귀를 후빌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찬양을 인도하

는데 또 이어 귓밥이 포르르 굴러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늘 저를 괴롭혔던 귀에서 나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 말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더욱 열심히 복 받을 짓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아 나누며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을 전합니다.

신영근 장로

:: 생활 속의 잠언 ::

신앙상담

나의 남편은 오래 전 예루살렘 성가대장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간 후 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었다. 강서기도처에서 사역을 하다가 멀리 광양으로 발령받은 얼마 후, 불현듯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가 왜 갑자기 교회를 떠났는지는 거의 이십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유를 모른다.

전도사 시절에 남편으로부터 교인들이나 신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과묵하고 신실한 남편이 지금 실족해서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모르긴 해도 그 당시 근거 없는 많은 말들이 남편의 영혼에 돌을 매달아 바다로 던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앙상담이란 대개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 상담을 받는 목회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한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게

인사가 시간이 지난 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형제자매가 다 알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이다. 얼마 전 가족에게 분분한 사건이 생겼다. 기도를 하면서 힘들어진 가족들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지만, 사건을 유발한 당사자는 묵묵부답이었다. 아직 기도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유령처럼 떠돌아 교회의 교역자들을 비롯해 우리 가족을 아는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신다.

말인 즉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신앙상담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의 사생활을 다른 많은 분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개인의 신앙상담은 상담자와 상담 의뢰인이 아닌 이상 타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담은 기도로 주님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떠벌려서 될 이야기가 있고 주님과 기도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교회는 신앙

의 주체가 되는 곳이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시지만, 그 소중한 개인사를 두고 상담을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시근덕거리는 것은 또 다른 시험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날마다 악한 마귀와 싸우면서 살아간다. 악한 마귀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시험의 요소를 제공하여 그 영혼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악한 마귀가 머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다.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를 하다가 무심코 뱉은 말이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주위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적은 없었는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죄인의 심정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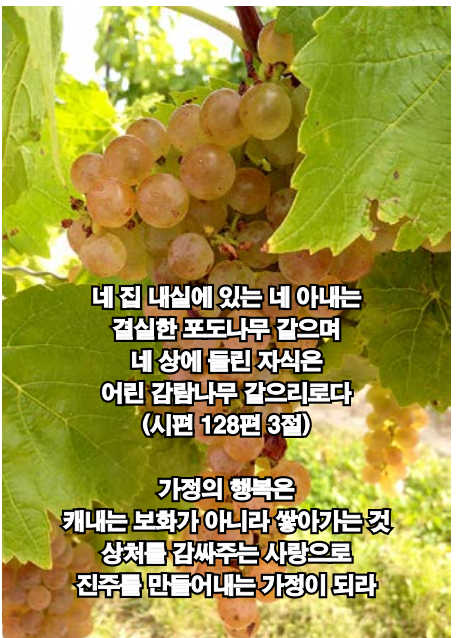
어머니!

인생의 스승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언제나 나를 가르치는 건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풀리지 않았던 관계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회복되었고, 풀리지 않는 일의 정답도 흐른 뒤의 시간 속에서 발견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메시지도 거짓 없는 시간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흐르는 시간을 통해 어린 시절 궁금했던 삶의 물음과 지혜의 답을 하나씩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밥을 흘리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왜 아버지께서는 뜨거운 숟가락을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하셨을까?”, “왜 부모님은 학교에 내야할 돈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셨을까?”, “왜 어머니는 계단을 내려가실 때 뒷걸음으로 내려가셨을까?”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덧 부모님의 나이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서게 되니 비로소 조금씩 공감하게 됩니다.

사실 언니 오빠와 나를 차별하는 어머니께 서운해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울었던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 더 많이 울게 됩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태어남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지금 여기 있음의 은혜를 덮을 수 있는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있음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며 누군가에게 내 사랑과 기쁨을 전해주고 또 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서는 서퍽이고 죽어서는 만냥”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살아생전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철없는 자식들은 서퍽으로 보다가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모습이 서퍽이 아닌 만냥이었음을, 아니 만냥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때쯤 어머니는 이 땅을 떠나시고 그 은혜를 갚을 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날마다 깊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성공이나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의 5월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겉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시편 128편 3절)

가정의 행복은
케내는 보화가 아니라 쌓아가는 것
상처를 감싸주는 사랑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라